

건강 칼럼

겨울 스포츠 후 소아 골절, 초기 진단 및 치료 중요

겨울철이면 소아 골절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증가한다. 스케이트, 스키, 보드 등의 겨울 스포츠를 즐기다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의 부주의로 인해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골절을 입는 아이들도 많아, 겨울에는 아이들의 안전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골절은 뼈나 골단관 또는 관절면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의미한다. 대개 물리적 충격이 원인으로, 물리적 충격이 직접 가해진 부분에 골절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골절과 더불어 뼈 주변 연부 조직과 장기에도 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 이에 아이가 가볍게 부딪히거나 넘어졌더라도 지속해 통증을 호소한다면, 병원에 내원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소아의 골격계는 성인과 다른 특성을 가져, 같은 부위에 골절이 발생해도 양상과 치료 과정, 예후 등이 크게 다르다. 소아의 미성숙 골격은 외력에 대한 탄력성이 크고, 골막이 두껍고 재생 형력이 왕성하다. 따라서 골

절의 치유 기간이 짧고, 골단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과 구분된다.

일반적인 골절은 주로 낙상, 교통사고, 타박상 등의 직접적인 골절로 인해 발생한다. 이 외에도 간접적 외상(뼈에 회전력 등이 가해져 발생하는 골절), 병적 골절(골다공증, 종양, 감염 등으로 약해진 부위에서 정상적인 뼈에서 골절을 유발하기에는 약한 힘에 의해 일어난 골절), 피로 골절(일정 부위에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가해짐에 따라 생기는 골절) 등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소아 골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놀이나 운동 중에 넘어지거나 뛰어내리다가 겪는 골절이다. 손목과 아래팔뼈(요골과 척골), 팔

꿈치, 빗장뼈(쇄골) 등의 순서로 잘 다치며, 교통사고에 의한 골절은 넘어라뼈(대퇴골)나 종아리뼈(경골과 비골)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성인과는 다른 골절 양상을 보이는데, 소아의 뼈는 탄성이 있어 완전 골절이 되지 않고 휘거나 용기를 만드는 불완전 골절인 경우가 많다.

또한, 분쇄 골절(뼈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골절) 발생 빈도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특히, 성장기에는 골절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성장기 어린이의 뼈는 많은 부분이 연골 상태로 남아있다. 그중 팔과 다리뼈의 양쪽 끝부분, 관절에 가까운 부위인 골단에 인접한 곳에 성장

판이 있는데, 이는 단단한 뼈 조직보다 외력에 약하다. 이에 성장판 골절이 흔하게 나타나며, 이 부위가 손상되면 성장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성장기 어린이 골절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아 골절의 치료는 대부분 골절 부위를 맞추고, 석고 깁스 등으로 일정 기간 고정하는 보존 치료를 진행한다. 그러나 팔꿈치 골절 등의 특정 부위는 수술 치료가 훨씬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아, 의료진에게 정밀 진단을 받고 알맞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최근에는 소아 골절에도 교통사고 등에 의한 심한 골절, 여러 부위의 골절 등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성인 골절과 비슷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소아 골절은 치유 속도가 빨라 유합이 잘 되므로, 초기 진단이 부적절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미 골유합이 이루어져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초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므로, 골절이 의심된다면 조속히 병원에 내원해 초기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종 진

김포 연세더비튼병원 원장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실험용 위성 신고 발사되는 日 카이로스 2호 로켓



18일 일본 서부 와카이현 구시모토 마을의 키이 우주 발사장에서 일본 우주 벤처 기업 '스페이스원'의 민간 로켓 카이로스 2호가 실험용 위성을 탑재한 채 발사되고 있다.

식사 중 아사드 정권 붕괴 축하하는 시리아 여성들



17일(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한 식당에서 시리아 혁명군 깃발 문양의 스카프를 목에 두른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셀카를 찍으며 바샤르 아사드 정권 붕괴를 축하하고 있다.

사설

영국 그린 산업혁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풍력발전 추진에 따른 과제와 일부 한계점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논란은 영국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영국은 재생에너지 강국이다.

영국 스코틀랜드 주변 바다에는 이미 고정식과 부유식 해상 풍력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2030년까지 조성하려는 50기가와트 용량으로, 대형 원전 50기에 육박하는 규모다.

스코틀랜드와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전체 에너지의 95퍼센트를 저탄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어민들 걱정도 커지고 있다. 스코틀랜드 어민 4천여 명의 어민협회는 생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어장의 50퍼센트가 풍력단지에 포함돼, 조업 구역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저탄소 식품을 공급하는 능력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특히 영국의 해안과 바다 대

부분은 공유수면이 아닌 왕실 소유다.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 물론 풍력발전 계약이 이뤄지면 개발사들이 개별적으로 지역 어민들과 대화하고 또 이해를 조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50년 동안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석유와 가스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새 일자리 제공도 큰 숙제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까지 만들었다. 다양한 각계의 목소리를 들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영국은 최종 탈탄소는 전체 에너지의 5퍼센트 미만을 가스, 7~8퍼센트를 원자력에서 얻는 게 목표다.

재생에너지들이 지속적이지 않고 간헐적이기 때문에, 배터리와 함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의 다양성을 주장한다. 문제는 비단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아름다운 순례길 김제 수류금산

김제 수류금산은 전북 도내 '아름다운 순례길' 중 하나로 '화합'이라 이름 붙여진 7코스다. 출발 지점 금산사를 벗어나 금산교회로 향한다. 한옥으로 된 예배당은 1908년 헌당된 모습 그대로다.

7(가역)자로 지어진 것은 남녀를 구분해 앉히기 위해서다. 최초의 장로인 이자익은 어릴 적 아버지가 행상에 실패해 조덕삼의 집에 마부로 들어오게 됐다. 이후 톱톱이 글을 익히고 성경을 읽었다.

주인인 조덕삼과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된다. 교인이 200명이 넘는 정도로 커지자 교인들 투표로 장로를 뽑게 된다. 장로가 된 건 마부인 이자익이다.

조덕삼은 사별하지 않고 오히려 이자의 장로를 1920년부터 5년간 평양신학교에 유학까지 시킨 뒤 금산교회의 담임을 맡긴다.

금령저수지 쪽으로 가면 동국마을(옛 구릿골) 입구에 단청

으로 장식된 대순진리회 건물이 있다.

증산법종교 본부도 있다. 증산교를 창시한 강증산(강일순)이 묻힌 자리다. 증산법종교는 유일한 핏줄인 강순임과 사위인 김병철이 세운 증산교의 분파다.

원평집강소는 백정 출신 통통개가 동학 대접주 김덕명 장군에게 '신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헌납한 곳이다.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고교도 있다. 원평교당(원불교)과 원평성당(천주교), 원평교회(개신교) 등 3개 종교가 모여 있다. 원평성당에서 수류성당까지는 6km다. 7코스의 마지막이다.

1895년에 세워진 수류성당은 20명이 넘는 성직자와 수많은 수도자를 탄생시켰다. 1908년에는 인명학교를 세워 전북 최초의 신학교로서 한문과 신학문을 가르쳤다. 수류는 지금도 주민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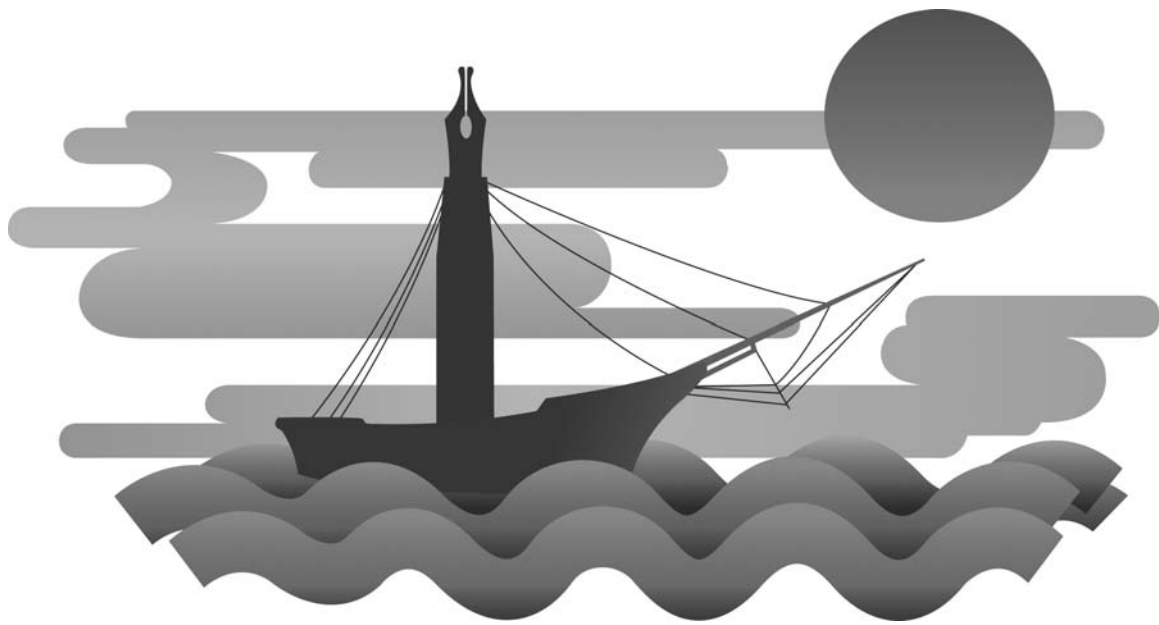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